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5.10.08 / 제8호

MATCH PREVIEW

추석 연휴 맞아 수원전 “3전 3승” 겨냥한다
경남을 상대로 2025년 맞대결 전승 도전

BLUEMAN INTERVIEW

‘커리어 최다 공격포인트’ 제르소
“인천은 내 집이자 가족이다”

UTD REPORT

수원 또 나아? 2020년대 추석 연휴
수원삼성전 돌아보기

ROOKIE INTERVIEW

‘로컬 루키’ 강도욱.
한 방을 가진 선수가 되고 싶다



제8호 THE UNITED / 발행일 2025년 10월 08일 / 등록번호 영등포라00591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자단 / 디자인-인쇄소발행소 (주)다스포츠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유희팩커드빌딩 19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INCHEON UNITED 2025 SQUAD

윤정환 감독
HEAD COACH

이호 수석코치
COACH

아벨 코치
COACH

정혁 코치
COACH

권찬수 GK코치
GK COACH

김용신 전력분석코치
PERFORMANCE COACH

정문호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김정훈 수석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진영 통역
INTERPRETER

오승기 통역
INTERPRETER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5 이명주
MIDFIELDER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혁
MIDFIELDER

8 신진호
MIDFIELDER

9 무고사
FORWARD

10 이동률
FORWARD

11 제르소
FORWARD

13 최승구
DEFENDER

14 바로우
FORWARD

15 임형진
DEFENDER

16 이가람
MIDFIELDER

17 김성민
FORWARD

18 백민규
FORWARD

19 김민석
FORWARD

20 델브리지
DEFENDER

21 황성민
GOAL KEEPER

22 성힘찬
FORWARD

23 박경섭
DEFENDER

24 강도욱
MIDFIELDER

25 이범수
GOAL KEEPER

26 강윤구
DEFENDER

27 김보섭
FORWARD

28 김건웅
MIDFIELDER

29 강민성
FORWARD

30 서동한
FORWARD

31 이상현
GOAL KEEPER

32 이주용
DEFENDER

33 김현서
MIDFIELDER

39 김명순
DEFENDER

77 박승호
FORWARD

88 정원진
MIDFIELDER

94 쇼타
FORWARD

97 김동현
GOAL KEEPER

99 박호민
FORWARD

2025 SCHEDULE

1R	02월 22일 (토) 14:00	2	인천 : 경남	0	인천축구전용
2R	03월 01일 (토) 14:00	2	인천 : 수원	0	인천축구전용
3R	03월 09일 (일) 16:30	2	성남 : 인천	1	탄천종합
4R	03월 15일 (토) 14:00	1	인천 : 서울E	0	인천축구전용
코패	03월 23일 (일) 14:00	3	인천 : 춘천시민	0	인천축구전용
5R	03월 29일 (토) 16:30	1	인천 : 부산	1	인천축구전용
6R	04월 05일 (토) 14:00	0	화성 : 인천	1	화성종합
7R	04월 13일 (일) 14:00	2	인천 : 충북청주	1	인천축구전용
코패	04월 16일 (수) 19:00	2	인천 : 평창	1	인천축구전용
8R	04월 19일 (토) 14:00	3	인천 : 천안	0	인천축구전용
9R	04월 26일 (토) 16:30	1	부천 : 인천	3	부천종합
10R	05월 04일 (일) 16:30	3	인천 : 김포	0	인천축구전용
11R	05월 10일 (토) 19:00	0	충남아산 : 인천	3	아산이소신
코패	05월 14일 (수) 19:00	3	울산 : 인천	0	울산문수
12R	05월 18일 (일) 16:30	0	안산 : 인천	2	안산와~
13R	05월 25일 (일) 16:30	2	인천 : 전남	0	인천축구전용
14R	06월 01일 (일) 19:00	3	천안 : 인천	3	천안종합
15R	06월 08일 (일) 19:00	1	인천 : 부천	0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15일 (일) 19:00	1	수원 : 인천	2	수원월드컵
17R	06월 21일 (토) 19:00	2	인천 : 화성	0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29일 (일) 19:00	1	김포 : 인천	1	김포솔더
19R	07월 05일 (토) 19:00	2	전남 : 인천	1	광양축구전용
20R	07월 13일 (일) 19:00	2	인천 : 충남아산	1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20일 (일) 19:00	0	경남 : 인천	2	창원축구센터
22R	07월 27일 (일) 19:00	4	인천 : 안산	2	인천축구전용
23R	08월 02일 (토) 19:00	0	서울E : 인천	0	목동종합
24R	08월 09일 (토) 19:00	0	부산 : 인천	2	구덕운동장
25R	08월 16일 (토) 20:00	1	인천 : 성남	2	인천축구전용
26R	08월 24일 (일) 19:00	0	충북청주 : 인천	4	청주종합
27R	08월 30일 (토) 19:00	1	인천 : 충남아산	1	인천축구전용
28R	09월 07일 (일) 19:00	1	부천 : 인천	0	부천종합
29R	09월 13일 (토) 19:00	3	천안 : 인천	4	천안종합
30R	09월 20일 (토) 19:00	1	인천 : 김포	2	인천축구전용
31R	09월 28일 (일) 19:00	0	서울E : 인천	0	목동종합
32R	10월 04일 (토) 16:30	화성 : 인천	화성종합		
33R	10월 08일 (수) 14:0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34R	10월 12일 (일) 16:30	성남 : 인천	탄천종합		
35R	10월 19일 (일) 14:00	안산 : 인천	안산와~		
36R	10월 26일 (일) 14:00	인천 : 경남	인천축구전용		
37R	11월 02일 (일) 14:00	인천 : 부산	인천축구전용		
38R	11월 08일 (토) 14:00	전남 : 인천	광양축구전용		
39R	11월 23일 (일) 14:00	인천 : 충북청주	인천축구전용		

- 경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파아리아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s SUWON PREVIEW

2025 3차 '대격돌' 추석 연휴 맞아 수원전 "3전 3승" 겨냥한다

글 = 지문호 UTD기자 (jimh2001102@naver.com)

인천은 승격 경쟁의 가장 강력한 상대인 수원삼성을 홈으로 불러들여 올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을 치른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10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수원삼성블루윙즈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2025' 33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인천은 지난달 20일 치러진 김포와의 30라운드 경기에서 1-2로 패배했다. 여러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골로 마무리짓지 못했다. 순간의 실수들로 인해 후반전에 김포에게 2골을 헌납했다. 후반 40분에는 무고사가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헤더로 밀어넣으며 추격의 불씨를 다졌다. 무고사의 2경기 연속 득점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후반 지역 크로스를 통해 골을 노리는 시도를 이어갔으나 김포의 골문을 추가로 열지 못하며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수원의 30라운드도 1-2 패배였다. 경남을 홈으로 불러들였던 수원은 2실점 이후 1점을 따라붙었지만, 추가 득점 없이 경남에게 무릎을 꿇었다. 29라운드부터 경남의 지휘봉을 새로이 잡은 김필종 감독대행의 부담 이후 첫 승이다. 이외에도 수원의 최근 흐름이 올 시즌 들어 가장 좋지 않다. 30라운드 종료 시점 기준 최근 6경기 1승 2무 3패를 기록했다. 수원은 이 6경기 동안 6득점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6골 중 3골이 후반 추가시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27라운드 성남전에는 후반 추가시간에만 두 골을 넣으며 극적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80분대 득점도 2회이다. 인천은 이러

한 수원의 경기 막판 몰아치는 공세를 집중 견제해야 한다.

인천은 지난 6월 수원 원정에서 박승호의 멀티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처음으로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원정석이 가득 찼던 경기에서 1위의 위엄을 뽐냈다. 올해 2라운드에 펼쳐졌던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수적 우위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두었다. 당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사상 첫 매진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몰기도 했다. 약 반 년 만에 다시 펼쳐지는 K리그2 12위전이자 '수인선 더비'에 다시 한 번 구름관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 시즌 내내 홈 무패 행진을 달리던 인천이 시즌 말미에 접어들며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홈경기 3연속 무승이다. 성남, 충남아산, 김포를 불러들여 1무 2패를 기록했다. 인천의 마지막 홈 경기 승리는 지난 7월 27일 안산전이다. 반전이 필요한 지금, 2라운드에서 맞이했던 수원을 다시 홈으로 불러들여 무패행진 마감과 함께 승격 '매직넘버'를 줄이고자 한다.



vs GYEONGNAM PREVIEW

'우승 노리는' 인천, 경남을 상대로 2025년 맞대결 전승 도전

글 = 이지우 UTD기자 (jw2000804@naver.com)

10월의 마지막 상대로 인천은 경남FC를 만날 예정이다.

경남은 한때 K리그2 우승을 달성하고, 바로 다음 시즌에 K리그1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다. 이번 시즌 경남은 초반 기세가 나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점이 늘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위권에서 고전하던 경남은 팀을 이끌던 이을용 감독이 사퇴하면서 시즌 중반에 변화를 맞이하였다.

경남의 메인 포메이션은 4-3-3으로,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영입한 외국인 미드필더 브루노 코스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다. 리그 내 타 구단과 비교했을 때 경남은 여름에 변화가 많았다. 앞서 언급한 브루노 코스타를 시작으로 마세도, 단레이까지 외국인 선수가 셋이나 새로 합류했다. 또한 박태용, 이찬동 등 잔뼈가 굵은 미드필더를 영입하여 유럽 무대로 이탈한 이강희의 공백을 메우고자 시도했다. 떠난 선수도 있었지만 경남은 부지런히 선수 영입에 뛰어들면서 팀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

올 시즌 두 팀의 맞대결은 인천이 2연승을 거두며 앞서 나가는 중이다. 공교롭게도 두 경기 모두 2-0으로 종료되었고, 득점이 비교적 후반부에 나왔다. 경기 막판에는 인천이 날카로운 공격을 펼치면서 집중력을 유지했으나, 중반까지는 경남이 자신들의 전술을 펼치면서 저력을 보여준 구도로 해석할 수 있다. 경남으로서는 인천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으므로 적극적인 압박과 역습을 시도할 전망이다.

인천과 경남의 맞대결은 보통 득점력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향이 짙었다. 경기력과 별개로 경남은 팀 내 최다 득점자가 3득점을 기록한 이종민과 박민서로, 확고한 득점 루트를 만들지 못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가 팀 공격의 방점을 찍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짙었다. 반면 인천은 리그 득점 1위의 무고사를 필두로 제르소, 박승호가 많은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리그 내 최고 수준의 득점력을 지닌 팀으로 자리매김했다. 9월 일정을 치르면서 수비력에 큰 문제를 드러낸 인천이지만 꾸준한 득점력은 오히려 유지했다. 인천이 강점을 잘 살린다면 경기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반대로 경남의 역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10월의 경기 일정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이 경기는 인천이 홈에서 우승을 확정 짓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인천 입장에서 경남과의 일전은 필승의 각오로 임하리라 예상된다. 인천의 공격력이 다시금 불을 뿜는다면, 인천은 시즌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다.



'커리어 최다 공격포인트' 제르소 인천은 내 집이자 가족이다

글 = 박범근 UTD기자(keu0617@naver.com)



이제 젊지 않지만, 아직 더 경쟁할 수 있다

Q. 2025시즌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요즘 몸 상태는 어떤가?
몸 상태는 매우 좋다. 무엇보다도 여름이 지나서 좋다. 회복도 쉽게 할 수 있고, 훈련도 더 수월하다.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서 몸 상태도 더 좋다.

Q. (인터뷰 기준) 올 시즌 전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1경기를 제외하면 전부 선발 출전이였다. 부상 없이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비시즌 기간에 준비를 잘했다. 특히 동계 훈련 때 몸 관리를 잘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시즌 중에도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잘 먹고, 잘 쉬고 있다. 팀 훈련도 도움이 된다. 동계 훈련 초반에 했던 체육관이나 달리기 세션이 아주 힘들었다. 힘든 훈련을 이겨낸 덕분에 지금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Q. 91년생으로 올해 만 34살이다. 축구선수로서 젊다고 할 수 없는 나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 상태나 기량의 변화를 실감하는가?
솔직히 아직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 어린 선수들의 열정이나 열망,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나를 어리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도 더 경쟁할 수 있다고 느낀다. 감사하게도 커리어를 보내는 동안 큰 부상이 많지 않았다. 현재의 몸 상태가 내 어린 시절이나 지금의 젊은 선수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근처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Q. 제르소 선수의 경기장, 훈련장 밖 생활이 궁금하다. 축구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스트레스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손쓸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에 관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다.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한다. 그래서 시간 대부분을 가족과 많이 보낸다. 아내, 아이들과 함께 바쁘게 지내면 잡생각들이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Q. 경기 직후 곧바로 가족과 춘천 레고랜드에 놀러 간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평소에도 가족과 많이 놀러 다니는 편인가?
가능하면 가족들과 좋은 곳을 가려고 한다. 레고랜드는 아들이 가고 싶어해서 갔다 왔었다.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갔었다. 휴일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명소에 가고 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색다른 경험도 하려고 노력한다.

Q. 혹시 최근에 갔다 온 곳이 있는가?
요즘에는 아이들 학교가 개학해서 시간을 많이 내지는 못한다.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속초다. 1년 전쯤에 2박 3일로 다녀왔다. 날씨도 좋았고, 산이라든지 자연경관들도 아름다워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호텔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호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Q. 최근에 무고사, 델브리지와 함께 구단 영상 콘텐츠 <피치 밖에서>에 출연했다. 선수들과 소고기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네 컷 사진 등 여러 가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콘텐츠였다. 혹시 다음에 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는가?
다른 콘텐츠라... 사실 잘 모르겠다. 그때 했던 촬영이 나에게 가장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평소에도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삶이나 여러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고기 먹으며 다른 선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즐겁게 찍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캠핑이나 글램핑처럼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가 괜찮을 것 같다.

Q. 인천이 K리그2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인천이 K리그2에서 최고의 팀이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1부리그에 있었던 팀이라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고의 선수들과 코치진이 있어서 인천이 순위표 가장 위에 있다. 감독님, 코치님이 적재적소에 선수들을 잘 활용하고 있고, 훌륭한 방식으로 경기에 접근하고 있다. 경기를 압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을 오래 소유하면서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

1부리그에서 강등되자마자 곧바로 승격하는 팀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어서 인천이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시즌 대부분을 1위로 보내고 있다. 이제 남은 경기가 많지 않다. 이 순위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다.



Q. 올해 리그에서만 10골과 10도움을 기록했다. 한 시즌 커리어 최다 공격포인트다. 이 기록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개인적으로 의미가 크다. 새로운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기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료가 만들어준 기회가 있었다. 감독님과 코치진의 전술 덕분에 내가 더 좋은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었다. 팬분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 기록은 나 혼자만 아니라 팀 전체가 함께 만든 성과라고 생각한다. 개인 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인천의 승격이다. 그 목표를 위해 남은 경기도 잘 준비하겠다.



더 공격적으로 바뀐 인천, 나에게도 좋은 기회

Q. 시즌 초 인터뷰에서 윤정환 감독이 있어 인천에 잔류했다고 이야기했었다. 선수로서 실제로 겪어본 윤정환 감독은 어떤 지도자인가? 우선 인천에 남아서 굉장히 기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내 커리어 중 올해가 최고의 시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공격포인트를 많이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축구를 하고 있다. 윤정환 감독님께서 나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알고 계시다. 윤정환 감독님 덕분에 내가 더 빛날 수 있었다. 팀이 나를 원하고, 나도 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

Q. 조성한 감독 시절에는 왼쪽 측면에서 더 많이 뛰다는 인상이었지만, 윤정환 감독 체제에서는 오른쪽 윙어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에 익숙해진 것인가?

한국에서 와서는 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뛰었다. 그러나 그전에는 측면으로 넓게 벌려서 뛰는 스타일의 윙어였다. 지금까지 했던 포지션과 다른기는 하지만, 내가 원래 했던 역할로 돌아간 것이기에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Q. 윤정환 감독 체제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윙어에게 각각 요구되는 역할이 다른 것 같다. 실제로 윤정환 감독이 제르소 선수에게는 주로 어떤 점을 지시하는가?

감독님께서 넓게 벌려서 플레이하라는 주문을 많이 하신다. 우리 스리백과 미드필더가 상대 압박에서 탈출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도 하셨다. 그다음에는 내가 상대 수비수와 1대1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계획에 맞춰 무고사나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연결해야 한다. 기회 창출이나 뒷공간 침투도 많이 요구하신다. 활발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기대하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유지해야 한다. 압박이 들어온 상황에서 곧바로 기회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계획대로 공격을 전개하면, 기회가 올 것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감독님 말씀대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플레이하고자 한다.

Q. 리그, 감독의 변화로 인천은 과거보다 더 공을 오래 소유하면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이 변화가 제르소 선수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나에게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 이전에는 역습을 주로 노리는 축구를 구사했었다. 감독님의 성향 차이이지, 결코 전술이 나뉘는 뜻은 아니다. 윙어로서 체력 소모가 많은 전술이었다. 60~70m를 전력으로 질주하면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긴 스프린트가 많아서 체력 저하가 컸다. 지금은 공을 더 오래,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공을 돌리면서 선수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숨을 돌릴 수 있다는 점도 이 전술의 장점이다. 가장 큰 차이는 수비에 쏟는 에너지다. 우리 팀이 공을 상대보다 오래 가지고 있어서 수비에 신경을 항상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느 전술이 더 좋은지, 나쁜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감독님, 지도자들의 성향 차이일 뿐이다. 과거에도, 지금도 팀 전술에 맞춰 즐겁게 플레이하고 있다.

Q. 인천에 온 뒤로 중거리 골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26라운드 총백정 주전에서 아주 멋진 중거리 골을 기록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거리 슛 시도 자체도 증가한 것 같다. 팀에서의 지시인가 아니면 그동안 억눌려있던 공격력이 폭발하고 있는 것인가?

'중거리 슛을 많이 시도해라'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 팀 전술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전술상 중거리 슛을 할 기회가 많다. 그 이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전에는 스트라이커나 박스 안에 있는 공격수를 찾아 크로스나 패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공간이 생기면 박스 바깥에서 슈팅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오른쪽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슛이나 크로스를 많이 연습한다. 크로스만 올리기보다는 중거리 슛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장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Q. 포지션을 왼쪽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한 점도 중거리 슛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인가?

그것이 가장 큰 이유다. 왼쪽 윙어로 플레이하면, 안으로 들어와서 슈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내 오른발 슈팅은 좋지 않기 때

문이다. 반대로 오른쪽에서 뛰면, 중앙으로 들어와서 왼발로 슈팅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슈팅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측면으로 드리블한 뒤, 오른발로 크로스를 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 오른발 크로스는 슈팅보다 낮기 때문에 이러한 플레이가 가능하다. 여러 옵션을 활용하려고 한다.

Q. 경기 전 상대 분석 과정에서 특히 집중해서 보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영상을 많이 챙겨본다. 팀마다 공격, 수비 방법이 다르다. 상대에 맞춘 분석 영상을 팀에서 제공해줘서 참고하고 있다. 코치진이 매 경기 내가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지 방향과 역할을 제시해준다. 나는 그 지시를 착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경기장에 들어가면 창의성을 활용해서 상대를 이기려고 전력을 다한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 마음도 비우고 경기에 임한다. 경기를 앞두고 생기는 압박감이나 긴장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즐기려고 하고 있다.

Q. 최후방에서 골키퍼가 찬 공을 제르소 선수가 받아서 기회로 연결하는 장면이 이전에 많았다. 앞으로도 그러한 플레이를 기대해도 되는가?

지금도 골키퍼들과 호흡을 자주 맞춰보고 있다. 최근에도 경기에서 몇 번 시도했었다. 상대 수비에 걸리거나 아니면 공이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튀어서 아쉽게 결정적인 기회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골키퍼들과도 좋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 훈련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팬 덕분에 인천은 내 집이자 가족

Q. 인천이 강등의 아픔을 겪었지만, 팬들은 오히려 더 하나로 뭉치고 강해진 것 같다. 팬들의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을 선수로서 어떻게 느끼고 있나? 인천 팬분들의 응원은 대단하다. 작년에 힘든 시즌을 보냈고, 결국에는 강등되었다. 하지만 올해 선수와 구단, 팬이 하나로 더 단단히 뭉쳤다. 팬분들의 응원과 지지는 우리 선수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 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순항하고 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인천은 분명 K리그1으로 승격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이 흐름을 유지하고 싶다. 인천은 잠재력이 가득한 팀이다. 훌륭한 도시와 팬들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인천이 K리그 최고의 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Q. 인천에서 3년을 뛰었다. 무고사, 김도혁 등 개인 응원가가 있는 선수들이 부럽지는 않나?

부럽거나 질투심을 느끼지는 않는다. 무고사와 김도혁은 이 팀에서 오랫동안 헌신했고, 이들이 쌓아온 업적을 존경한다. 두 선수는 개인 응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팬분들이 두 선수를 위해 응원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나도 즐거워진다.

Q. 제르소 선수만의 개인 응원가가 나온다면?

나를 위한 전용 응원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아도 좋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내 개인 곡은 없어도 괜찮다.

Q. 혹시 좋아하는 인천 응원가가 있는가?

하나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 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느껴져서 인천의 모든 응원가를 다 좋아한다. 경기 중에 팬분들의 응원을 들으면, 확실히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응원가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 뒤를 지켜주는 서포터즈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 응원 덕분에 선수들이 큰 힘을 받는다.

Q. 제르소 선수에게 인천은 어떤 의미인가?

좋은 질문이다. 나에게 인천은 집이고, 가족이다.

Q.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메시지 부탁한다.

시즌 내내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홈, 원정 가리지 않고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 거리가 멀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지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팬분들께 전하고 싶다. 인천을 향한 팬분들의 응원과 충성심이 시즌 마지막에는 결실을 볼 것으로 확신한다. 모두가 인천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작년에 힘든 시즌을 보냈다. 올해는 반드시 승격해서 어려웠던 순간을 행복함으로 바꾸고 싶다. 팬분들의 응원에 보답하고 싶다.





수원 또 나아? 2020년대 추석 연휴 수원삼성전 돌아보기

글 = 이환희 UTD기자(hy0515@naver.com)

#추석 연휴 중인 10월 8일, 인천유나이티드가 수원삼성과의 '하나는행 K리그2 2025' 3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승격을 두고 이번 시즌 내내 다툰 두 팀의 승점 6점짜리 빅매치다. 2020년대 양 팀의 네 번째 '추석 맞대결'이다. 인천은 "수원 또 나아?", 수원은 "인천 또 나아?"라고 생각할 만큼 유독 추석 연휴에 자주 경쟁했던 승격 후보들의 맞대결을 UTD기자가 돌아본다.

힘겨웠던 2020시즌, 팬들 없는 경기장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인천



2020.10.04. K리그1 24R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경기 배경

2020시즌은 인천팬들에게 '힘겨움', '처절함' 등의 감정으로 기억된다. 시즌 초반부터 부진에 빠졌고, 6월 7일부터 113일 동안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6라운드에 시즌 첫 승을 거뒀고, 이후 부산전 역전 등 기적을 쓰면서 겨우 잔류에 성공했다.

이 경기는 파이널B 두 번째 경기였고, 직전 경기는 성남 원정 6-0 승리였다. 조성환 감독의 중도 부임 이후 이 경기 전까지 5승 1무 3패로 팀의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원도 최하위권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홈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인천이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팬들은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했다.

경기 리뷰

홈경기였지만, 전반전부터 인천은 수원의 공세를 막아내기 바빴다. 이태희 골키퍼의 선방과 수비진의 클리어링의 연속이었는데, 전반 43분에 결국 원

백 김태환의 원발 슈팅에 선제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경기장에 원정팬은 없었지만, 김태환은 당시 감독이었던 레전드 박건하의 웃기 셀레브레이션 을 재현해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후반전에는 송시우가 투입되어 반전을 꾀했다.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막혔고, 수원 수비수 민상기와와 접촉 과정에서 여러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았다. 인천은 그때도 에이스였던 무고사가 분투했고, 수원은 직전 시즌 득점왕이었던 타가트를 필두로 추가 득점을 노렸지만 더 이상의 득점은 없었다.

주전으로 꾸준히 출전하던 오반석과 김연수의 부상으로 인해 급조된 정동윤-양준아-김정호 스리백은 이 경기 팀에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경기 도중 문지환-양준아-김정호로 수비진을 바꿨고, 또 다시 양준아-문지환-김정호로 위치를 바꿨을 정도로 수비 조직력에 문제를 노출하며 패배했다.

키플레이어 - 이태희

이날 가장 바빴던 선수는 이태희였다. 인천의 강등 위기마다 팀을 구했던 이태희는 시즌 종료 3경기를 남겨둔 이날 역시 6개의 유효슈팅을 막아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두 경기 뒤, 잔류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26라운드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이태희는 다시 한 번 팀을 구해내는 활약을 펼쳤다.



추가시간 극장 연속골로 9년 만에 파이널A에 진출!



2022.09.11. K리그1 31R @수원월드컵경기장

경기 배경

역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었었고, 8,491명의 관중이 경기장에 들어왔지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8월 5경기에서 3승 2무로, 인천은 기세가 좋았다. 수원 원정을 앞둔 인천의 목표는 장기적으로는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획득, 단기적으로는 파이널A 진출이었다. 승리하면 파이널A 확정, 비기면 다른 팀들의 결과를 확인해야 했다.

수원은 시즌 도중 박건하 감독을 이병근 감독으로 교체하며 8월에 3승을 챙겼고, 11위에서 9위까지 순위를 올렸다. 지금은 유럽에서 활약 중인 오현규가 3경기에서 3골을 넣고 있었고, 여전히 수원에 있는 이기제는 3경기 4도움으로, 둘의 공격력을 잘 막아내야 했다. 무고사의 이적과 에르난데스의 부상으로 공격진 구멍 메우기도 인천의 과제였다.

경기 리뷰

'후반 추가시간 2골'로 이 경기를 설명할 수 있다. 전반 41분 이강현의 득점으로 선제골을 넣어 1-0으로 앞선 채 전반을 마무리했지만, 후반에 내리 3골을 내주며 1-3으로 끌려갔다. 수원 수비수 고명석이 2골을 연속으로 넣었고, 오현규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흐름을 내줬다. 파이널A 진출을 위해 승점 1점도 간절했던 인천은 김대중과 김성민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후반 정규시간이 모두 지나가며 그대로 경기가 끝날 위기였지만, 교체 투입된 김대중이 장점인 머리로 추격골을 넣었다. 인천 선수들은 빠르게 공을 들고 돌아왔고, 그 의지는 추가시간 6분 김민석의 동점골로 이어졌다. 기적 같은 추가시간 2골로 얻은 승점 1점은 9년 만의 파이널A 진출을 만들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은 '파이널A 확정' 이제는 아시아로'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원정응원을 온 팬들과 함께 환호했다.

키플레이어 - 김민석

지금도 '제네시스'로 유명한 김민석이 경기 종료 후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활약을 부모님 덕분이라고 말하며 "돈 많이 벌어서 외제차, 제네시스를 사드리겠다"고 말했던 게 이때다. 이 경기는 2022시즌 김민석이 처음으로 출전 명단에 포함된 날이었다. 국산차인 제네시스를 외제차라고 말하는 귀여운 실수가 있었지만, 프로 데뷔골을 넣어 팀을 영광으로 이끈 소중한 경기였다.



추석 다음날 2-0 완승으로 어린이날 패배 완벽 설욕하다



2023.09.30. K리그1 32R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경기 배경

2023시즌 인천은 홈경기장에서 수원전만 3번을 치렀다. 코리아컵(당시 FA컵) 8강에서도 수원을 만나 홈에서 경기했기 때문이다. 8강에서 수원을 꺾었지만, 비가 왔던 어린이날 수원전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서는 리그에서의 승리가 필요했다. 어린이날에 인천은 이기제의 프리킥 한방에 패배하고 말았다.

다시 수원을 홈에서 만난 32라운드, 상대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31라운드 기준 승점 22점으로 최하위였고, 김병수 감독을 경질하고 염기훈 플레잉코치가 감독대행으로 임명된 때였다. 수원팬들은 경정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춰 원정석을 가득 채웠다. 인천은 2년 연속 파이널A 진출을 위해 승리가 꼭 필요했고, 돌아온 무고사가 선발 출전했다.

경기 리뷰

인천은 주력 차이에 집중해 전반부터 오른쪽에서 박승호와 김준엽이 이기제의 뒷공간을 계속해서 노렸다. 전반 18분, 박승호가 뒷공간을 침투한 뒤 돌파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이 전술이 통했다. 페널티킥의 달인 무고사가 차 넣으며 1-0으로 앞서갔다.

후반전엔 교체로 에르난데스, 제르스, 천성훈이 들어왔다. 세 공격수는 끊임 없이 상대수비를 괴롭히며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후반 37분, 에르난데스-정동윤-천성훈으로 이어지는 추가골은 뼈가골이 됐다. 이 경기 승리에 힘입어 인천은 2년 연속 파이널A 진출에도 성공했다.

2023년 추석 연휴는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이어졌는데, 10월 3일에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카야일로일로를 상대로 홈에서 4-0 완승을 거두며 인천은 완벽한 추석을 보냈다.

키플레이어 - 김도혁

골은 무고사와 천성훈이 넣었지만, 이 경기 공식 수훈 선수는 김도혁이었다. 선발 출전해 이명주와 중원을 이룬 김도혁은 경기 끝까지 많은 활동량으로 중원을 장악했다. 인터셉트 7번은 김도혁의 활약이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해준다.





로컬 루키 강도욱. 한 방을 가진 선수가 되고 싶다

글 = 손지호 UTD기자 (sonjiho50@gmail.com)



취미로 시작한 축구, 주장 완장과 보낸 학창 시절

‘벅속까지 인천’이라는 말에 딱 맞는 선수가 있다. 바로 강도욱이다. 강도욱은 인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인천에서 졸업했다. 이후 2024시즌을 앞두고 고향 팀인 인천유나이티드에 합류했다. 지난 3월 코리아컵 2라운드에서 파랑겨장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홈 경기장을 누볐다. 언젠가 찾아올 K리그 데뷔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로컬 루키’ 강도욱을 UTD기자들이 만났다.

Q.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구단 훈련 스케줄표에 맞춰서 팀 운동을 하고, 개인 운동도 병행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운동 시간 외에는 (최)승구와 영어 과외를 같이 받으러 다니고, (임)형진이 형하고 (이)주용이 형과 함께 글램핑을 가거나 밥을 자주 먹으러 다녔어요. 축구센터에서는 동기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편이에요.

Q. 인천에서 태어나서 만수북초, 서곶중, 부평고까지 학창 시절을 모두 인천에서 보냈어요. 꿈에 그리던 프로 입단까지 고향에 있는 팀으로 했어요. 다른 어떤 선수보다 인천과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인천에서 태어나서 학창 시절도 계속 같은 지역에서 보내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정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 없어도 인천이 좋아요. 워낙 오래 있던 지역이다 보니 타 지역을 다녀오면 괜스레 반가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Q. 인천에 오래 있었던 만큼 지역에 대해 잘 알 거 같은데 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맛집이나 장소가 있다면요.

맛집은 구월동 정각사거리 쪽에 횡집이 있는데 물회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기분 전환이나 비빔밥을 먹고 싶을 땐 을왕리 해수욕장을 주로 갔어요. 날씨가 좋은 날에 가면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 추천드려요.

Q. 처음에 축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처음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생이랑 축구를 하다가 축구 코치님 같은 남성분이 와서 축구를 잘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그래서 알려드렸더니 그분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축구 뭐 해볼 생각 없냐고 설득하셨고, 그러면서 처음에 취미반에 들어가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Q. 축구 선수를 꿈으로 갖고 도전해 보아왔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나요.

우선 축구가 매우 재밌었어요. 그리고 꿈이라는 걸 처음 생각해 봤던 게 축구선수였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수반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Q. 서곶중으로 진학한 후에 연령별 대표팀과 인연이 생겼어요. 2019년에 U-14 우한컵 대표팀으로 발탁됐고, 이듬해에는 U-15 대표팀에도 소집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EOU컵에 U-18 대표팀으로 나서서 득점도 올렸는데, 갈 때마다 느낀 부분이 다를 거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연령별 대표팀에 갔는데 그때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졌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연령별로 가면 갈수록 매번 새롭게 배울 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소속팀에 돌아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Q. 대표팀 소집을 갔다 와서 다시 소속팀으로 와서 운동할 때 달라지는 본인의 모습이나 태도가 스스로 체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대표팀에 다녀오면 확실히 운동할 때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선수들이 한곳에 모여 훈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이 잘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팀 내에선 동기나 후배들에게 오히려 더 모범을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Q. 모범을 보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팀 내에서 주장을 자주 맡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학창 시절에 주장을 맡아온 편인가요. 본인의 주장 스타일도 궁금하네요.

네, 어찌다 보니 주장을 계속 맡아 왔어요. 고등학생 때는 주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원래 주장이 다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또 하게 됐어요. 팀에 모여 있는 모든 선수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재밌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던 것 같아요. 저부터 항상 웃는 태도를 가지려 했죠.



프로 무대 입성, 새로운 순간의 연속

Q. 학창 시절을 보내고 2024시즌을 앞두고 꿈에 그리던 프로 입단에 성공했어요. 벌써 올해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입단 첫 시즌 때와는 느낌이 많이 다른가요.

확실히 첫 시즌 때보다 적응이 된 건지 1년 차 때보다 편해진 것 같아요. 한편으론 아직도 이렇게 선수 경력이 대단한 형들과 한 팀에서, 같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신기해요.

Q. 지난해 입단 후 창원에서 진행된 2차 전지 훈련에서 UTD기자와 인터뷰 당시 ‘훈련을 따라가는 게 확실히 쉽지만은 않았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지금은 적응을 잘해서 첫 시즌보다 운동하는 게 자체에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매번 훈련하면서 프로 무대를 배우는 거다 보니까 부분마다 어려움을 겪는 건 아직까지 있어요.

Q. 입단 후에 작년과 올해 각각 코리아컵에서 한경기씩 출전하고, 아직 리그 데뷔전은 갖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선수로 사람인지라 심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의 멘탈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시나요.

입단 첫해였던 1년 차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운동을 계속 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2년 차에 들어서서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차분히 제가 해야 할 것들을 했어요. 코치님들도 지나다니면서 꾸준히 말을 걸고 챙겨 주셔서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울산 HD와의 코리아컵 8강전 원정 경기에서 기다렸던 인천 소속 첫 공식 경기 데뷔전을 가졌는데 당시 기분이 나쁘고 난 후 느낌에 대해요.
스스로는 긴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경기장에 들어서니까 확실히 긴장이 너무 됐어요. 경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풀리고 제 플레이를 조금이나마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경기 결과도 그렇고 스스로의 플레이에도 만족하지 못해 아쉬웠던 기억입니다.

Q. 올해도 코리아컵을 통해 시즌 첫 경기를 치렀어요. K3리그 소속 천시민축구단과 2라운드 경기에 출전했는데 본래 포지션인 미드필더가 아닌 팬들이 보기엔 다소 어색한 왼쪽 측면 수비수로 나섰어요. 포지션 변경에 특별한 계기는 딱히 없어요. 당시 경기에 (김)도혁이 형이랑 (문)지환이 형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올해 훈련할 때나 연습 게임 때 측면 풀백을 자주 썼는데 자연스럽게 출전 기회도 측면 수비수로 받은 것 같아요.

Q. 본래 포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이 많을 거 같아요. 코리아컵도 3월에 치러서 준비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공식전에 나설 정도로 금세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측면 수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어색한 부분이 당연히 있었지만 미드필더로 설 때보다 압박이 적어서 경기를 뛰고 난 뒤에 더 잘할 수 있겠는 데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과 코치님도 적응을 위해 위치 조정이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세세하게 짚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Q. 미드필더에 대한 미련도 조금은 있을 것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드필더로 계속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이든 기회를 받고 팀을 위해 경기를 나설 수 있으면 다 좋아요. 뒤에 있는 선수들은 출전을 위해 정말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방’을 가진 선수가 되기까지 달린다

Q.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축구를 해오면서 선수로서나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성장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초종교 때보다 프로 무대에 처음 발을 들인 1년 차 때 선수로나 사람으로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경력이 대단한 형들과 훈련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말씀 듣고, 고민 이야기도 하면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잘 챙겨 주시지만 특히 (이)명주 형이 많이 신경 써 주셔요.

Q.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가요.

1차적으로는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한 방을 가진 선수가 되고 싶어요.

Q. 도욱 선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기다리는 팬분들이 정말 많아요. 언젠가 찾아올 홈 경기장 나서는 순간이나 훈련장에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이번 매거진 인터뷰를 통해 메시지를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팬분들께서 훈련장에 자주 찾아와 기대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응원을 보내주시는 데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기다리시는 팬분들께 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아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팀은 반드시 1부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응원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많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인천유나이티드 블루마켓 운영 안내



IUFC
BLUE MARKET

2025시즌
인천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상품들을
만나보세요!

GATE-W7 옆 2층
경기 시작 2시간 30분전 ~ 경기 종료 30분 운영
온라인 블루마켓 WWW.INCHEONUTDMARKET.COM

2025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카카오TV·네이버TV
채널을 구독하세요!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